



‘펜폴즈 와이너리의 시작, 호주를 대표하는 포트’

펜폴즈 클럽 토니 포트

Penfold Club Tawny port

지역	호주 > 남호주		
포도품종	마타로 쉬라즈 그르나슈		
알코올	18%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8-20℃		
테이스팅 노트	레드빛이 감도는 앰버 브라운 컬러로 건조된 과일, 바닐라, 카라멜, 견과류 등의 복합적인 부케가 피어오른다. 월넛, 토피 등 견과류, 스파이시함, 스모키한 오크 플레이버가 겹겹히 레이어링 되어있다. 텅텅하지 않은 깔끔한 피니쉬가 매력을 더한다.		
페어링 TIP	단단한 치즈/ 디저트		



제품설명



펜폴즈 클럽 토니 포트는 멀티 빈티지, 멀티 품종 블렌딩을 통해 퀄리티와 지속성을 매해 유지하며 3년간의 보틀 숙성을 통해 출시한다.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슨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렌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인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 손꼽는 명주로 꼽힌다. 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